

A Daily Bread

날짜: 5785 년 타무즈월 27 일 (서기 2025 년 7 월 23 일)

토라 문: 마토티 (Mattot)

주제: 미디안과의 전쟁

민수기 31 장 3 절은 “여호와를 위하여 미디안에게 복수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혼과 옥과의 전투에서는 모세가 적극적으로 앞장 스셨습니다. 그런데 미디안과의 이번에 기록하신 전쟁에서는 모세께서는 백성을 전쟁에 준비시키는 역할만 하였고, 실제로 전투를 이끈 분은 핀하스 (비느하스)였습니다.

성언 이브리어로 “미디안”이라는 이름은 “다툼” 또는 “분쟁” (*ḡīṭā, madon*)이라는 뜻에 기원을 둡니다. 이러한 이유없는 다툼을 유발하는 미움과 분쟁의 악한 영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제거 되어야 했습니다. 근거 없는 증오가 없어져야만 되는 이유는, 한 민족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의 조화로운 기능과 근본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보된 그러한 성향과 악행은 더 나아가서, 온 땅에 창조주이신 여호와 전능자를 선포하는 최상의 사명을 이루는데 있어서 더더욱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근거 없는 분쟁과 증오의 궁극적인 뿌리는 자기 중심성 사상에 근거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성향이 주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과장된 자아를 위협하는 어떤 반대자—혹은 반대하는것처럼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도 위협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긍정적인 특성은 상대적으로 그 자신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것처럼 느끼고 보기 때문에, 그는 필사적으로 그 상대자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외적으로는 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고통을 겪는 것을 보고 내심으로 기뻐하거나, 최소한 상대의 어려움에 공감하지 않으며, 아무런 마음의 고통도 느끼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향으로 더 나아가, 이기적 성질은 타인의 선한 면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호와 엘로힘을 신뢰하지 않고 그가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신 세상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진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기 중심성향의 영에 영향 받지 않는 사람은 타인의 좋은 점에 집중합니다. 누군가 고통을 겪으면, 그는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며 그 고통이 정당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잘못을 본다면, 그는 토라의 지침에 따라 그를 온유하게 권면하며, 이유 없는 분쟁과 미움에 사로 잡히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타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의견 차이를 자신의 자아에 대한 공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차이를 더 넓고 깊은 진리를 발견할수 있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떻게 타인에게 보여질까 하는 체면에 비중을 두지 않기에,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면하고 있는 상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내면을 다듬어, 진정한 성숙을 이루어 나아 갈 수 있습니다.

A Daily Bread

여호와 엘로힘께서 이 전쟁을 처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에게 복수하는 전쟁”이라고 기록하게 하셨지만, 동시에 연이어서 그 전쟁이 “여호와를 위한 복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의 적은 곧 여호와 엘로힘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미디안 전쟁에서 특별히 강조된 이유는, 미디안이 여호와 엘로힘과 이스라엘 모두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물리적으로 멸하려 했고, 그 수단으로 그들을 죄에 빠뜨리려 했는데 곧 이 꾀책은 여호와 엘로힘을 공격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 본문에 사용된 여호와의 이름은 하바야(Havayah)입니다. 이 성언은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로, 창조주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다양한 에너지의 발현되는 힘들을 나타냅니다. 이 창조의 힘들은 서로 다르고 때로는 상반적인 위치에서 운행하지만, 자기 이익을 우선하며 탈선된 주장력을 펼치고자 하지 않기에 그 운행과 역사를 완벽한 조화 가운데 이룹니다. 이 힘들은 오직 여호와 엘로힘의 창조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미디안의 자기중심성과 분쟁성은 이러한 상반적인 힘의 원리 안에서 내재한 살롬의 조화로움을 파괴하며, 여호와 엘로힘께서 온 세상을 지속적으로 창조하시기 위해 쓰시는 영적 시스템 곧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돈으로 치닫게 합니다.

이 전쟁이 모세에 의해 주도되어야 했던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 세상에 있어서 선호하는 관점이 각기 다른 배경의 사람들과 온 인류가 서로 협력하고 평화를 이루고 유지하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창조주 부여하신 토라와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는 우선적으로 여호와 절대 주권자의 토라 말씀에서 그가 각 역할에 맞추어 정하신 합법적 권위가 정당함을 가르치는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토라 자체가 개인의 내외면과 가족과 민족적 공동체에 영속하는 평화를 이루는 신성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3 장 7 절에, “그 길은 즐거움의 길이요, 그 모든 길은 평강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엘로힘께서 선택하셔서 영생의 빛이며 장수인 토라를 주신 구별된 통로이자, 자신의 내면의 이기성을 완전히 비운 겸비하신 분이였기에, 미디안과의 전쟁을 인도하는 데 책임자였음을 기록케 하신 토라 말씀을 통하여 암시합니다.

여호와 엘로힘께서 미디안에게 복수를 명하신 이유는,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수천 명의 이스라엘 자손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미디안 여인들의 미혹으로 인해 많은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에 빠졌고, 그로 인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하여 오히려 여호와 창조주께서 그의 정직하신 능력을 바벨의 영으로 혼탁한 온 물리적 세상에 발하도록 지명해주신 그 이름- 이스라엘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비록 그들이 죄에 빠졌었다고 해도 여호와 엘로힘은 그들을 해친 자들을

A Daily Bread

마치 자신을 해친 자처럼 여기시며, 이스라엘의 승리를 늘 예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영혼들 안에는 열방의 영이 함께 공존하였으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여, 그의 뜻인 토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므로써 진정한 이스라엘로 거듭났고, 온전하고 순결하도록 승화하여 나아가는 지속되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샬롬.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18:19-22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엘로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엘로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엘로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1-4